

이청용, 팀 대파했지만 빛났다

아스널 상대 시즌 2호 도움…볼턴 1대 4 패

박지성 교체·차두리 풀타임 출전 맹활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 이청용(22·볼턴)이 강호 아스널을 상대로 시즌 2호 도움을 올렸다.

이청용은 11일 오후(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널과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0-1로 끌려가던 전반 44분 요한 엘만더의 헤딩 동점골을 도왔다.

지난달 22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라운드 원정경기(3-1 승)에서 후반 23분 엘만더의 결승골을 배달했던 이청용은 을 시즌 두 번째 어시스트다.

볼턴은 후반에 세력을 헌납하며 1-4로 완패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을 시즌 리그 네 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한 이청용은 지난 2라운

드 도움에 이어 '징검다리 공격포인트'를 작성해 지난 시즌(5골 8도움) 이상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이청용은 4-4-2 포메이션의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섰지만 최전방은 물론 수비 진영 까지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수에 걸쳐 볼턴의 주축 선수다운 플레이를 펼쳤다.

0-1로 뒤집어진 전반 44분 상대 수비수가 백해당한 공을 가로챈 이청용이 골키퍼 마누엘 알루니아까지 제치고 나서 골 지역 원쪽 엔드라인에서 자로 잔듯한 크로스를 올렸고, 엘만더가 골문 정면에서 헤딩으로 골망을 출렁였다.

이청용은 볼 터치가 다소 매끄럽지 못해 공이 사각 지역으로 흘러 슈팅 기회를 놓쳤다.

지만 어시스트로 아쉬움을 달랬다.

한편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는 차두리(셀틱)는 같은 시각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치른 정규리그 4라운드 하트오브미들로시 언과 훌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풀타임을 뛰며 3-0 완승에 힘을 보탰다. 셀틱은 4연승을 달리며 맞수 레인저스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 차에서 앞서 선두를 지켰다.

셀틱의 미드필더 기성용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박지성은 앞선 11일 잉글랜드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후반 35분 교체 출전했다.

3라운드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결장했던 박지성은 이날 3-1로 앞서 가던 후반에 투입돼 중앙 미드필더로 뛰며 후반 39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에게 찔려준 슬루페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등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맨유는 후반 추가시간에 2골을 허용하며 눈앞의 승리를 놓쳤다.

/연합뉴스

장애인체전 광주 9위·전남 15위

전남 모범선수단상 수상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0일 5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16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일원에서 열린 이번 체전에서 광주는 종합 9위에 올랐고, 전남은 종합 1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21개 종목에 3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는 대회 마지막날 2관왕에 오른 수영의 최

종선(지체장애)과 대회 3연패에 성공한 여자좌식배구의 선전에 힘입어 금메달 6개를 추가했다.

금메달 37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51개를 수확한 광주는 9위로 대회를 끝마쳤다.

광주는 당초 목표했던 7위에 미치지는 못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6개의 한국신기록과 1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선전 했다. 또 5관왕에 빛나는 양궁 김지현을 포함,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내걸었던 전남은 15위를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했다.

23개 종목에 335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전남은 마지막날 경기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더하며 금메달 14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5개로 15위를 기록했다.

역도 -56kg의 김금희는 10일 벤치프레스

종합과 파워리프팅에서 1위에 오르며 2관왕

에 올랐다. 김금희는 웨이트리프팅에서 은

메달을 추가하며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는 전남의 협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남은 이번 대회 역도 종목에서 7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13개, 동메달 11개를 쏙

이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포로복싱 김주희 4대기구 통합챔프

국내 여자 프로복싱의 간판 김주희(24·거인체육관)가 세계 여자프로복싱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올랐다.

김주희는 12일 오후 경기도 안양체육관에서 펼쳐진 필리핀의 주제스 나가와(23)와 4대 기구 통합 타이틀 방어전 및 세계복싱연맹(WBF) 라이트플라이급(48.980kg) 챔피언 결정전 10라운드 경기에서 판정승(2-0 1부)으로 승리했다.

김주희는 세계 여자프로복싱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라는 영예를 거두지만 좀처럼 인터뷰에 나서지 못했다. 10라운드 내내 격렬한 경기를 펼친 탓에 통통 부은 얼굴을 가리앉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30분쯤 지나서야 겸

우 말문을 열었지만 정문호 거인체육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까지 터트리고 말았다. 이날 경기 그만큼 고전이었던 것이다.

김주희는 이날 조반부터 경기를 쉽게 풀어가지 못했다. 원손 팔에 이은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연속 허용하면서 고전하다가 중반 이후에야 승기를 잡았다.

김주희는 “1년 만에 링에 서다 보니 초반에 경기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힘든 경기도 한다. 이렇게 고전하면서 나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원쪽 눈을 정확하게 맞은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눈 부위

는 심하게 부어올랐고 코피까지 터졌다.

김주희는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

덕분에 9, 10라운드에서는 내가 미흡은대로 경기를 이끌어갔다”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합(GBU)

에 이어 WBF까지 4대 기구를 통합한 챔피언이 됐다. 2004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2007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에 올랐다가 5관왕에 빛나는 양궁 김지현을 포함,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가족은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1년 만에 링에 서다 보니 초반에 경기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힘든 경기도 한다. 이렇게 고전하면서 나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원쪽 눈을 정

확하게 맞은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눈 부위

는 심하게 부어올랐고 코피까지 터졌다.

김주희는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합(GBU)

에 이어 WBF까지 4대 기구를 통합한 챔피언이 됐다. 2004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2007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에 올랐다가 5관왕에 빛나는 양궁 김지현을 포함,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가족은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1년 만에 링에 서다 보니 초반에 경기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힘든 경기도 한다. 이렇게 고전하면서 나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원쪽 눈을 정

확하게 맞은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눈 부위

는 심하게 부어올랐고 코피까지 터졌다.

김주희는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합(GBU)

에 이어 WBF까지 4대 기구를 통합한 챔피언이 됐다. 2004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2007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에 올랐다가 5관왕에 빛나는 양궁 김지현을 포함,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가족은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1년 만에 링에 서다 보니 초반에 경기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힘든 경기도 한다. 이렇게 고전하면서 나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원쪽 눈을 정

확하게 맞은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눈 부위

는 심하게 부어올랐고 코피까지 터졌다.

김주희는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합(GBU)

에 이어 WBF까지 4대 기구를 통합한 챔피언이 됐다. 2004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2007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에 올랐다가 5관왕에 빛나는 양궁 김지현을 포함,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가족은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1년 만에 링에 서다 보니 초반에 경기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힘든 경기도 한다. 이렇게 고전하면서 나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원쪽 눈을 정

확하게 맞은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눈 부위

는 심하게 부어올랐고 코피까지 터졌다.

김주희는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합(GBU)

에 이어 WBF까지 4대 기구를 통합한 챔피언이 됐다. 2004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2007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에 올랐다가 5관왕에 빛나는 양궁 김지현을 포함,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가족은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1년 만에 링에 서다 보니 초반에 경기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힘든 경기도 한다. 이렇게 고전하면서 나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원쪽 눈을 정

확하게 맞은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눈 부위

는 심하게 부어올랐고 코피까지 터졌다.

김주희는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합(GBU)

에 이어 WBF까지 4대 기구를 통합한 챔피언이 됐다. 2004년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2007년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에 올랐다가 5관왕에 빛나는 양궁 김지현을 포함, 10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가족은 “원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무척 당황했다”며 “이후 상대 강펀치를 피해 외곽으로 돌며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희는 “1년 만에 링에 서다 보니 초반에 경기 감각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힘든 경기도 한다. 이렇게 고전하면서 나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희는 이날 4라운드에서 원쪽 눈을 정